

# 가족의 社會的 支援이 社會心理的 安寧에 미치는 影響

徐文姬

개인이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받는 정서적 위안이나 물질적 도움은 개인의 身體的·精神的 安寧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995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혼자는 친구와 부모·형제를 주요 지원자로 인식하였고, 기혼자에게는 配偶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특히 남편이 부인에 비해 배우자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이혼·사별·별거자의 경우, 여자는 자녀와 형제를, 남자는 친구와 형제를 주요 지원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러나 친척 및 기타 사람들의 지원에 대한 인식은 거의 미미하였다.

이같은 社會的 支援은 생활만족감, 우울, 죽고 싶은 생각 등 사회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情緒的 支援보다는 道具的 支援이 보다 큰 영향을 주었고, 출처별로는 가족의 영향력이 크고 방향도 일관성 있게 나타난 반면에 친구의 지원은 미혼에게서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별거·사별자의 지원에 대한 인식 및 그 영향력은 대체로 약하였다.

社會的 支援의 社會心理的 安寧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원을 건강인자의 하나로 인식하고 健康增進을 위해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지원의 출처가 주로 가족이라는 점으로 볼 때 건강한 家族을 위한 支援政策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족 이외의 사람들도부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支援의 出處를 多樣化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 주요용어 : 사회적 지원, 정신건강, 우울, 생활만족감, 사회심리적 안녕

筆者: 本院 責任研究員

▶ 원고를 검토하여 주신 金勝權 責任研究員과 吳泳昊 責任研究員께 감사드립니다.

# I. 研究背景 및 目的

## 1. 研究의 理論的 背景

개인이 살아가면서 맺게되는 주위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이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위안이나 물질적 도움은 개인의 身體的, 情緒的 安寧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같은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한 것이 社會的 支援과 관련된 연구이다.

社會的 支援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중반 사회역학에서부터 시작되어, 보건학, 지역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등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관심 속에서 연구되면서 그 개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제시되었다. 연구 초기에는 주위로부터의 지원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機能에 중점을 두고 사회적 지원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였으나 점차 사회적 네트워크인 構造를 포함하여 누구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았는가 하는 多次元的인 분석의 경향을 띠고 있다.

사회적 지원의 내용에 대한 理論的 分類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신뢰와 관심, 귀 기울여주기와 같은 情緒的 支援(Emotional Support), 재정지원 및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과 같은 實體的·道具的 및 物質的 支援(Tangible·Instrumental·Material Support), 확신을 주고 충고나 제언 정보를 주는 情報的 支援(Informational Support), 그리고 취미 및 여가를 공유함으로써 소속감 및 긍정적인 애정을 갖게 해주는 同伴者的 支援(Companionship Support) 등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하는 경향이다(Choi, Jaccard & Ramey, 1996; 유지영·김명자, 1995). 물론 이들 기능의 상호 관련성은 매우 높다. 경험적으로는 사회적 지원 내용에 대한 인식을 묻는 여러 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뒤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시도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연구에 따라서는 지원 내용이 상세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物質的 또는 道具

的 支援과 그 외의 것으로만 구분되거나 또는 하나의 차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社會的 支援 內容은 社會關係網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 두 개의 개념이 혼동되기도 하지만 지원 내용을 기능으로, 사회관계망은 구조로 인식하고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社會關係網은 개인이 접촉하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및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상담원, 그리고 종교인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사회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사회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어떠한 關係網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지원 및 지원자가 달라지게 되고, 사회적 지원을 누구에게서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도 달리 나타난다(Choi, Jaccard & Ramey, 1996). 예를 들면 친구나 부모가 동일한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자가 피지원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나 개인사적인 배경에 따라 지원의 의미나 표현양식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회적 지원에 대한 초기연구는 주로 스트레스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었으며 최근에는 정신적·육체적 안녕과의 관련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 및 만성적인 긴장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社會的 支援이 스트레스 유발 요인 자체를 줄이거나, 또는 스트레스 발생과정에서 仲裁(Moderating Effect) 및 緩衝(Buffering Effect)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스트레스뿐 아니라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El, 1984).

지금까지의 研究結果를 종합하면 사회적 지원이 있는 사람이 지원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우울정도가 낮고(Lee, Crittenden & Yu, 1996), 생활만족도가 높으며(Lu, 1995; Choi, Jaccard & Ramey, 1996; 유지영·김명자, 1995), 심리적·정신적 안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Lin et al., 1979; 차봉석·장세진·박종구, 1992). 육체적으로도 심혈관계, 내분비 및 면역체

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Uchino, 1996),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추며(Kaplan et al., 1977), 또한 질병에 걸렸다하여도 환자역할 이행에 영향을 미쳐(박오장, 1985) 회복을 빠르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ELL, 1984). 또한 사회적 지원, 특히 배우자의 지원여부는 운동, 식습관 등 건강증진행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社會的 支援은 지원 자체뿐 아니라 그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영향도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통제하고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이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구분되며 또한 가족 중에서도 기혼자에게는 배우자가 가장 중요한 社會的 源泉이 된다(Choi, Jaccard & Ramey, 1996). 한편 무배우자에게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 社會的 支持의 원천이 되고 있다(장세진, 1992).

그런데 사회적 지원 효과에 개인의 性格 特性과 性, 地域의 人口學的 特性이 媒介變數로 작용한다. 즉 사회적 지원의 효과는 성격 특성(locus of control)과도 밀접하여 스스로의 삶에 대하여 統制力이 약한 성격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적 지원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Dalgard, Bjshovk & Tambs, 1995). 性別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도 더 크다. 또한 都市에 사는 사람이 農村에 사는 사람에 비해 社會的 支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산업화·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核家族 형태를 선호하고 있고 구성원의 役割 變化 등으로 家族의 機能이 약해지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에 의한 정보화의 영향으로 점차 사람들이 個別化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社會的 結束이나 支援을 제공받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2. 研究目的

이 연구에서는 첫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社會的 支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둘째로 社會關係網을 반영하는 社會的 支援의 出處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셋째로 이같은 사회적 지원이 개인의 생활만족감, 우울정도, 자살의도와 같은 社會心理的 安寧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넷째로 사회적 지원의 출처별 사회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의 程度差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관계망 또는 家族關係網이 結婚狀態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원이 사회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은 성별 및 결혼상태별로 나누어 集團間 決定要因의 差異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 II. 研究資料 및 方法

본 분석에서는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1995년에 실시한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sup>1)</sup> 자료 중 20~59세 인구 5,154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자의 특성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의 비율이 약간 높고, 미혼자 20.7%, 기혼자 74.3%, 사별·이혼·별거자 5.0%이며, 평균연령은 미혼 24.9세, 기혼자 40.5세이고 사별자가 51.3세, 이혼 및 별거자가 41세 정도로 전체 평균은 37.6세였다(表 1 참조).

---

1) 1995년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중 보건의식행태 부분은 전국의 15~69세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0~59세 인구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음. 동 조사의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인의 보건의식행태』(남정자·최정수·김태정 외, 1995)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음.

〈表 1〉 對象者の 性別 結婚狀態別 平均年齡

	전체		남자		여자	
	연령(SD)	N	연령(SD)	N	연령(SD)	N
미혼	24.9(4.58)	1,069	25.7(4.25)	617	23.8(4.78)	452
기혼	40.5(9.45)	3,828	41.7(9.07)	1,832	39.3(9.64)	1,997
사별	51.3(6.40)	176	53.0(4.63)	20	51.1(6.57)	156
이혼	41.7(7.40)	52	41.0(7.35)	24	42.3(7.53)	28
별거	40.8(7.85)	29	39.5(8.07)	12	41.8( 7.9)	16
전체	37.6(10.9)	5,154	37.8(10.7)	2,505	37.4(11.1)	2,649

본 분석에 사용된 변수로는 먼저 중심 개념인 사회적 지원을 道具的 支援과 情緒的 支援으로 구별하였다. 도구적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나서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의해 조사되었고, 정서적 지원은 이는 ‘아주 가깝게 지내며 개인적 비밀을 털어놓거나 속사정이나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심리적 안녕을 나타내는 변수로서는 생활만족감, 우울정도, 지난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 여부가 사용되었다. 生活에 대한 滿足感은 “지난 1년간 일어난 일이나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자신의 생활과 삶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서적인 차원의 만족감과 인지적인 차원의 행복감을 혼용한 1~7점 척도를 주어서 측정한 것으로 인지적인 차원의 안녕감과 정서적인 차원의 안녕감이 혼재된 개념으로 파악된다.<sup>2)</sup> 憂鬱程度는 조맹제가 완성한 한국어판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된 것이다. 이 척도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이

2) 이 질문에 대한 보기로 1~7점의 순서에 대해 아주 끔찍하다, 불행하다, 대체로 불만족하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스럽다, 행복하다, 아주 즐겁고 행복하다를 제시하였음.

家族의 社會的 支援이 社會心理的 安寧에 미치는 影響

되도록 통일시킨 후 그 평균을 이용하였다. 自殺意圖는 “지난 1년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이용하였다.

이 외에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 직업, 생활수준 등 人口學的 및 社會經濟的 變數와 主觀的 健康 變數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방법으로는 사회적 지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記述 分析을 하였다. 사회적 지원의 생활만족감, 우울정도, 자살의도와 같은 사회심리적 안녕과의 關係 및 影響의 程度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分散分析과 OLS 방식의 重回歸分析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시 사회적 지원 변수와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이외에 사회심리적 안녕이 신체적 안녕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관적 건강변수를 독립 변수에 포함시켰다.

### Ⅲ. 社會的 支援에 대한 認識

#### 1. 社會的 支援 內容에 대한 認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社會的 支援의 內容 및 支援者에 대하여 어떻게 認識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의 종류를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정서적 지원은 아주 가깝게 지내며 개인적 비밀을 털어 놓거나 속사정이나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점이고, 도구적 지원은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기꺼이 나서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조사결과는 <表 2>가 보여 준다. 情緒的 支援이 있다는 비율이 85% 이고 道具的 支援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90% 정도로, 도구적 지원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정서적 지원이 있다고 하는 비율

보다 높다<sup>3)</sup>.

〈表 2〉 性 및 結婚狀態別 社會的 支援이 있다는 應答 比率

(단위 :%)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전체 (4,906)	남자 (2,407)	여자 (2,499)	전체 (4,906)	남자 (2,407)	여자 (2,499)
전체	84.9	85.0	84.9	90.2	90.2	90.2
연령(세)						
20~29	89.8	85.3	93.5	94.0	91.2	96.5
30~39	85.9	85.1	86.8	91.2	91.6	90.8
40~49	82.5	85.2	79.8	89.2	89.3	89.4
50~59	77.4	83.7	71.2	82.5	87.3	77.8
결혼상태						
미혼	87.5	82.5	93.9	94.1	89.9	95.9
기혼	85.3	86.3	84.5	90.8	90.8	90.7
사별	67.1	72.0	66.5	65.0	63.1	65.6
이혼	53.1	61.0	49.4	77.6	79.7	74.0
별거	82.1	79.3	84.8	85.2	78.0	86.4

註: ( )는 응답자 수이며, 무응답자 248명이 제외됨.

정서 및 도구적 지원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별 인식의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性別 差異를 보이지 않았으나 年齡은 많아질수록 ‘지원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낮아진다. 그러나 연령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하면 남자는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자는 연령별 차이가 심하여 정서적 지원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경우 20~29세가 93.5%로 같은 연령대의 남자보다 높은 반면에 50~59세는 71.2%로 남자의 동일 연령대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結婚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女性보다는 男性의 삶의 質이 상대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結婚狀態에 따라서는 정서적 지원의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미혼, 기혼 및 별거자는 80% 이상이 있다고 한 반면에 사별이나 이혼을 한 사람은

3)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에 대한 인식간의 단순상관계수는 .429임.

그 비율이 낮다. 性別에 따라 여자는 미혼이, 남자는 기혼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도구적 지원이 있다는 비율은 대체로 정서적 지원과 같은 경향이고 다만 사별한 사람이 이혼한 사람보다 낮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 2. 社會的 支援 出處에 대한 認識

이 조사에서는 또한 정서적 및 도구적 지원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각각 그 支援者가 누구인지를 여덟 개의 보기를 주고 있는대로 표시하게 하였다. 그 결과, 情緒的 支援을 주는 대상이 있다는 4,166명이 모두 6,949개를 지적하여서 있다고 응답한 사람 1인당 평균 1.7개의 보기를 지적한 셈이며 道具的 支援을 줄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 4,425명은 10,013개를 지적하여서 1인당 평균 2.3개의 보기를 지적한 것이 되었다.<sup>4)</sup> 즉 情緒的 支援에 비해 道具的 支援을 줄 사람이 있다는 비율이 높으며,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실제로 도구적 도움을 줄 대상의 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表 3>은 복수응답결과를 결혼상태 및 성별로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未婚者에게 있어서는 親口가 가장 중요한 지원 제공자이고 그 다음이 父母, 兄弟의 순이다. 정서적 지원에 있어서 친구의 비중은 절대적이며 도구적 지원에서는 부모의 비중이 친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친척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에서만 여자보다 남자가 높게 나타났고 부모, 형제 및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제시하였다.

4) 보기에서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등이 복수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수로 하지 않고 그대로 보기로 기술하고자 함.

〈表 3〉 性 및 結婚狀態別 社會的 支援 出處 支援 比率

(단위 :%)

	남 자			여 자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정서적· 도구적 지원
<b>미혼</b>						
부모	26.4	66.0	24.7	35.1	76.0	33.8
형제	24.7	52.8	21.7	32.7	55.9	29.1
친척	2.0	7.3	1.1	0.5	4.5	0.3
친구/애인	69.4	59.7	51.3	83.2	65.7	61.9
기타	0.7	0.5	0.4	4.9	2.0	1.9
(N)		(610)			(447)	
<b>기혼</b>						
배우자	71.2	70.5	59.7	42.0	63.1	37.5
자녀	4.8	16.5	2.9	11.0	20.0	7.2
부모	13.0	34.7	11.1	14.1	31.9	12.1
배우자 부모	1.8	9.5	1.4	3.1	14.0	2.2
형제	17.9	46.5	15.5	32.3	54.9	28.1
친척	4.3	12.3	2.6	6.0	10.7	3.1
친구	31.0	27.5	19.4	39.3	18.9	15.7
기타	1.2	1.3	0.7	1.7	0.9	0.2
(N)		(1,745)			(1,885)	
<b>사별·이혼·별거</b>						
자녀	4.9	10.6	3.4	25.3	35.1	23.2
부모	10.9	22.1	6.2	7.6	8.5	3.5
형제	15.4	32.4	12.8	24.8	34.1	20.2
친척	6.0	5.1	1.8	5.5	6.7	3.4
친구/애인	33.3	19.7	16.9	25.0	12.8	10.6
기타	1.3	-	-	2.7	2.9	1.9
(N)		(51)			(168)	

註: ( )는 응답자수이며 무응답자 248명은 제외됨.

既婚者의 경우는 配偶者의 비중이 가장 큰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배우자에게서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配偶者가 정서적 및 도구적 지원을 모두 제공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남자 59.7%인데 비하여 여자는 37.5%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이 있다는 비율은 남자 71.2%, 여자 42%로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배우자 이외에는 兄弟와 父母에게서 道具的 支援을, 親口에게서 情緒的 支援을 기대하고 있다. 性別로는 여자에게 형제의 비중이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남자는 여자에 비해 친구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子女로부터의 지원은 여자가 많이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離婚·死別·別居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여자는 자녀와 형제로부터 남자는 친구(애인 포함)로부터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內容別로는 男子는 친구를 정서적 지원자로, 형제는 도구적 지원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 女子는 정서적 지원의 출처로 자녀, 친구, 형제의 비중이 유사한 반면에, 도구적 지원자로는 자녀와 형제의 비중이 컸다. 男女의 認識 差異가 가장 큰 것이 이들 결혼 경험이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집단이었고, 특히 지원의 출처로서의 자녀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社會的 支援은 친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家族支援이다. 본 분석에서는 친족 중에서도 配偶者, 父母, 兄弟 등 家族의 比重이 절대적임을 보여주고 있다<sup>5)</sup>. 한편 親口와의 지원은 상호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서로 스스로 유용한 인간임을 인식하게 되는 주요한 자원이다. 결혼상태 따라 차이가 심하기는 하지만 친구를 통한 사회적 지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親戚<sup>6)</sup>에 대한 지원은 기대가 낮고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로 사회적 지원의 원천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5) 서구의 사회관계망은 親族이 非親族에 비해 적거나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회관계망은 비친족에 비해 親族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내고 있음(옥선화·원효중, 1993).

6) 친척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은 개인차이가 크겠으나 대도시 100가구에 대한 조사결과 친척 중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모 23.1%, 친할머니 18.3%, 외할머니 17.2%, 친삼촌 10.8%, 고모 9.9%, 외삼촌 5.7%, 친할아버지 3.9%, 외할아버지 1.1%, 기타 6.2%로 나타났음(중앙일보 1월 13일자 12면).

우리 사회가 血緣 爲主의 사회이면서도 특히 家族 中心의 사회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IV. 社會的 支援과 社會心理的 安寧

社會的 支援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 우울정도, 자살의도와 같은 社會心理的 安寧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 1. 社會的 支援別 社會心理的 安寧

사회적 지원에 따른 社會心理的 安寧 수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적 지원을 정서적, 도구적 지원이 모두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 그리고 아무런 지원도 없다는 경우로 나누어 性 및 結婚狀態別로 1~7점 척도로 조사된 생활만족감 정도, 20개 질문에 대한 평균을 이용한 1~4점 척도의 우울정도, 그리고 자살의도가 있었다는 비율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정도가 큰 것이고 우울정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먼저 분산분석 결과 生活滿足感和 憂鬱程度<sup>7)</sup>는 결혼상태 및 성별로 나눈 6개 집단에서 사회적 지원정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表 4, 表 5 참조). 生活滿足感에서는 이혼·사별·별거 남자의 F값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이같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우울정도는 6개 집단 모두에서 지원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7)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우울증 평균(60점 만점)은 10.86으로(남정자·조맹제·최은진, 1996) 이를 1~4점 척도로 환산하면 1.54임.

가족의 사회적 지원이 사회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表 4> 性 및 結婚狀態別 社會的 支援과 生活滿足感과의 關聯性

	미혼		기혼		이혼·사별·별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4.30	4.36	4.37	4.47	3.37	3.92
도구적·정서적 지원	4.41	4.40	4.46	4.55	3.57	4.08
도구적 또는 정서적 지원	4.10	4.06	4.00	4.18	3.29	3.85
지원 없음	3.41	3.36	3.95	3.90	2.78	3.58
F	15.5**	5.8**	26.2**	26.1**	1.8	3.0*
N	608	444	1,734	1,870	51	167

註: 1) 1~7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감이 높음.  
 2) 삶에 대한 느낌의 남녀 차이에 대한 t-검증은  $p < .05$ , 결혼상태 및 지원정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각각  $p < .01$ 로 유의함.

<表 5> 性 및 結婚狀態別 社會的 支援과 憂鬱程度와 關聯性

	미혼		기혼		이혼·사별·별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1.58	1.65	1.46	1.51	1.91	1.82
도구적·정서적 지원	1.54	1.64	1.44	1.48	1.88	1.70
도구적 또는 정서적 지원	1.68	1.75	1.57	1.63	1.62	1.75
지원 없음	1.95	2.01	1.56	1.71	2.46	2.15
F	14.9**	3.3*	12.8**	21.4**	4.1*	7.0**
N	608	422	1,573	1,745	46	142

註: 1) 1~4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함을 나타냄.  
 2) 우울정도의 남녀 차이에 대한 t-검증 및 결혼상태 및 지원정도의 차이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각각  $p < .01$ 임.

<表 6>은 自殺意圖가 있었다는 비율을 비교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사회적 지원이 없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그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表 6〉 性 및 結婚狀態別 社會的 支援과 自殺意圖와의 關聯性

(단위 %)

	미혼		기혼		이혼·사별·별거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25.2	39.9	17.7	25.4	29.2	32.5
도구적·정서적 지원	21.3	39.6	15.1	23.9	23.0	27.2
도구적 또는 정서적 지원	30.2	36.5	27.0	30.0	15.9	27.2
지원 없음	62.0	66.2	35.9	36.1	71.8	50.3
$\chi^2$	31.4**	2.6	39.9**	11.2**	9.0*	7.2*
N	609	445	1,734	1,874	51	167

註: 자살의도의 남녀, 결혼상태 및 지원정도의 차이에 대한  $\chi^2$  분석결과는 각각  $p < .01$ 임.

한편 〈表 7〉은 社會的 支援에 대한 인식이 사회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및 건강요인과 비교하고자 연속변수인 생활만족감과 우울정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실시한 중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表를 보면 사회심리적 안녕을 나타내는 두 가지 종속변수에서 모두 道具的 支援과 情緒的 支援이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beta$ 값은 도구적 지원의 값이 생활만족감 .098, 우울정도 -.115이고 정서적 지원의 값이 각각 .053, -.048로 道具的 支援의 값이 정서적 지원의 값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서, 어려울 때 물질 서비스 등 실제인 도움이 정서적인 지원보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한 변수의  $\beta$ 값을 살펴보면 두 가지 종속변수 모두에서 주관적 건강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는 生活滿 足感에서는 생활수준, 미혼, 도구적 지원, 대입이상의 학력, 이혼, 연령, 별거, 정서적 지원의 순으로  $\beta$ 값이 컸고, 憂鬱에 대해서는 도구적 지원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미혼, 이혼, 연령, 정서적 지원, 전문

가족의 社會的 支援이 社會心理的 安寧에 미치는 影響

직의 순서로 유의하였다.

〈表 7〉 社會心理的 安寧에 影響을 주는 要因의 標準回歸係數(β)

	생활만족감	우울정도
성별	.060**	.024
연령	-.073**	-.077**
교육		
고교	-.008	.003
대입이상	.084**	-.058
직업		
전문직	.028#	-.038*
비전문직	-.005	.012
생활수준	.124**	-.068**
주관적 건강	.172**	-.205**
결혼상태		
미혼	-.108**	.107**
사별	-.012	.054**
이혼	-.064**	.106**
별거	-.054**	.050**
사회적 지원		
도구적 지원	.098**	-.115**
정서적 지원	.053**	-.048**
R <sup>2</sup>	.117	.122
F	<sup>45</sup> .9**	<sup>44</sup> .7**
N	4,499	4,872

註: \*\* p<.01, \* p<.05, # p<.1로 유의도를 나타냄

이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부호를 보면 결혼상태, 사회적 지원,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 및 생활수준과 같은 변수는 생활만족감, 우울정도에 대하여 모두 肯定的인 方向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性別과 年齡은 이들에 서로 다른 方向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여자는 남자에 비해, 그리고 연령은 많을수록 생활만족감이 높은 반면에 우울정도도 높다. 즉 생활만족감과 우울이 서로 다른 次元의 問題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2. 社會的 支援의 出處別 社會心理的 安寧에 미치는 影響力 差異

<表 8>은 사회적 지원의 出處別로 사회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社會的 支援의 出處는 構造인 社會關係網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한 關係網은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 분석에서는 최소한 결혼상태의 차이를 통제하고자 결혼상태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와 우울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큰 것이다.

그 결과를 결혼상태별로 보면, 우선 未婚 男女의 경우는 父母와 兄弟의 지원은 두 가지 사회심리학적 변수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親口는 우울정도에만 영향을 주었다. 既婚者의 경우 배우자, 부모, 형제가 일관되게 사회심리적 안녕 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고 배우자의 부모는 생활만족감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친구와 친척의 지원은 사회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생각되었다. 離婚·死別·別居者의 경우는 생활만족감에서 자녀의 지원만이  $p < .10$  수준에서 관계가 있음을 보일 뿐이고 다른 지원자의 지원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점은 家族의 支援은 사회심리적 건강에 대체로 肯定的인 方向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친구나 친척 및 기타 등 非家族의 支援은 유의성 정도가 약하고 또한 유의하다고 하는 경우에도 사회심리적인 안녕에 주는 영향의 방향이 일정치 않다는 점이다. 미혼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원의 출처가 되고 있는 친구의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은 이들의 우울정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既婚者에게 있어서 친구나 친척의 지원에 대한 인식은 사회심리적 안녕에 오히려 否定的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家族의 支援과 家族 以外の 支援에 대한 認識이 커다란 差異를 갖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表 8〉 社會心理的 安寧에 대한 社會的 支援者의 標準回歸係數(β):  
結婚狀態別 差異

	생활만족감	우울정도
미혼		
부모	.148**	-.117**
형제	.064*	-.113**
친척	-.036	-.014
친구/애인	.049	-.077*
기타	.005	-.008
(N)	(1,051)	(992)
기혼		
배우자	.129**	-.201**
자녀	.037	-.002
부모	.069**	-.004
형제	.024	-.060**
배우자부모	.069**	-.021
친척	-.036*	.027
친구	-.047**	.031 <sup>#</sup>
기타	.007	-.020
(N)	(3,601)	(3,310)
이혼·사별·별거		
자녀	.122 <sup>#</sup>	-.006
부모	-.101	.067
형제	-.218	.011
친척	-.039	-.029
친구	.031	-.086
기타	.079	-.053
(N)	(218)	(188)

註: 1) 성별, 연령, 교육, 직업, 주관적 생활정도, 주관적 건강이 통제되었음.

2) \*\* p<.01, \* p<.05, # p<.1로 유의도를 나타냄.

이와 같은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가족의 지원이 다른 사람들의 지원에 비해 절대적인 의미를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家族이 비가족에 비하여 道具的 支援의 경향이 강하다는 점과 <表 9>에 나타났듯이 사회심리적 안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道具的 支援이 정서적 지원에 비해 影響力의 정도가 크게 높았다는 점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

이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가 기존의 다른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차후 이에 대한 보다 深層分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V. 結論 및 政策的 意味

個人이 家族 등 주위 사람으로부터 받게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支援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글은 1995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행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와 같은 家族 및 社會 支援에 대한 內容 및 支援 出處에 대한 의식 실태를 알아보고 이것이 社會心理的 安寧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20~59세 성인의 90.2%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제로 지원을 해줄 사람이 있다고 道具的 支援을, 그리고 84.9%는 情緒的 支援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未婚者에게 있어서 친구는 가장 중요한 지원자로 특히 정서적 지원은 절대적이었으며 부모 및 형제가 도구적 지원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한편 既婚者는 배우자가 중요한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배우자를 지원의 출처로 인식하는 비율이 컸으며, 형제는 남자에 비해서 여자에게서, 친구는 남자에게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離婚·別居·死別한 경우 여자는 자녀와 형제가 중요한 정서 및 도구적 지원의 출처로 그리고 친구는 정서적 지원자로 인식되고 있고, 남자는 친구가 정서적 지원을 형제와 부모가 도구적 지원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그 이외 친척 및 기타를 지원 출처로 인식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였다.

이들 社會的 支援은 생활만족감, 우울과 같은 社會心理的 安寧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정서적 지원보다 道具的 支援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특히 우울에 있어서 도구적 지원이 건강변수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이었다. 支援의 出處別로는 未婚者에게 있어서 부모와 형제의 영향이 컸고 친구는 우울만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어서 가족이 도구적 지원자이고 친구가 정서적 지원자의 성격이 강함을 반영하였다. 既婚者에게는 配偶者의 지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그 이외에 부모, 형제, 배우자의 부모 등의 지원이 종속변수에 따라 영향을 주었고, 친구와 친척의 지원이 사회심리적 안녕에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離婚·死別·別居者에서는 자녀만이 일부 영향을 줄 뿐 사회심리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지원출처가 없었다.

대체로 家族 및 親口가 중요한 지원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족의 영향력이 크고 방향도 일관성 있게 나타난 반면에 친구는 미혼자에게는 긍정적이거나 기혼자에게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척의 지원도 미미하였으며 기혼자에게서는 부정적인 의미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 사람들의 지원은 거의 없고 영향력도 전혀 없었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家族中心의 意識構造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가 갖는 政策的 意味는 健康增進政策, 家族支援政策 및 社會福祉政策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健康과 관련하여 사회적 지원이 건강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인식되고 健康增進을 위한 정책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인구구조의 변화 및 식습관 등 생활의 변화로 질병구조가 급성 및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성인병으로 변화하면서 종전의 치료위주의 정책에서 예방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보건당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주로 음주 및 흡연의 감소, 식생활의 개선, 적절한 운동 등 건강과 관련된 행위의 실천을 권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실천 이외에도 퍼스널리티 특성, 사회적 지원 등이 중요한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社會的 支援을 주요한 健康因子로써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이를 건강증진 요인으로 活用하기 위한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할 시기에 있다고 하겠다. 國民健康增進을 위한 教育도 이같은 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社會的 支援의 出處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기혼자에게는 가족 중에서도 配偶者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家庭이 제 機能을 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離婚·死別·別居한 사람들의 支援體系는 매우 취약하고 이것이 社會心理的 安寧에 미치는 影響力도 전무한 형편이다. 離婚率이 증가하고 있고 이혼하는 사람들은 이혼이라는 사실 자체로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데다가 인간관계망의 단절로 사회적 지원 체계가 약화되어 주관적인 삶의 질 측면에서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家族解體가 방지되도록 상담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支援政策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지원의 出處가 多樣化될 수 있도록 가족 및 친구 이들 이외의 사람으로부터의 支援體系도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적 지원의 출처가 家族 등 血緣關係와 親口에게 제한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이외의 기타 사람들을 자원의 출처로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이들의 사회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影響力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족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종교 및 각종 사회단체에의 참여가 생활만족도를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社會的 支援의 出處를 多樣化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소외된 脆弱階層은 가족 및 친구의 사회적 지원도 취약할 것이므로 다양한 지원체계를 개발하여 이들이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主觀的, 精神的 次元의 삶의 질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研究의 限界點으로는 우선 스트레스 유발 및 만성 긴장-사회적 지원-사회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밝히기보다는 전체 대상자에게 스트레스 유발 및 만성 긴장상태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社會的 支援과 社會心理的 安寧의 關係만을 分析하였다는 點을 들 수 있다. 두 번째의 한계는 社會支援 體系의 構造에 있어서 結婚상태 이외에도 社會關係망이 다른 點의 差이를 考慮하지 않았다는 點이다. 즉 부모가 있으면서 支援이 없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부모가 없어서 支援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差이가 있을 것이나 자료의 한계로 그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한편 기혼자에게서의 社會심리적 安寧에 부정적인 의미로 影響을 주고 있다고 分析된 친구와 친척의 支援의 意味는 추후 보다 精確한 方法으로 다시 研究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參 考 文 獻

- 남정자·최정수·김태정 외, 『한국인의 보건의식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남정자·조맹제·최은진, 『한국인의 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박오장, 「사회적 지지가 당뇨병환자의 역할행위 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청구논문, 1985.
- 옥선화·원효중, 「가족의 사회관계망 구조와 관련변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1권 제1호, 1993.
- 유지영·김명자, 「중년기 부인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제3호, 1996, pp.151~165.
- 이숙·최진아·이춘하, 「사회적 지지체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4호, 1995, pp.55~69.
- 장세진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석사학위청구논문, 1992.

- 차봉석·장세진·박종구,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제25권 제4호, Dec., 1992, pp.429~435.
- Choi K. Wan, James Jaccard, Sharon L. Rame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s and Life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Family Structu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8, No.2, 1996, pp.502~513.
- Cobb, S.,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Vol.38, No.5, 1976, pp.300~314.
- Dalgard, O.S., Bjshovk S. and Tambs, K., "Social Support, Negative Life Event and Mental Health",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 166, No.1, Jan., 1995, pp.29~34.
- Ell, K., "Social Network,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 Review", *Social Services Review*, March 1984, pp.133~149.
- Farrel Michael P., Grace M. Barnes, "Family Structure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5, No.1, 1993, pp.119~132.
- Kaplan, Berton H., John C. Cassel, Susan Gore, "Social Supports and Health," *Medial Care*, Vol.15, No.5, Supplement 1977, pp.47~58.
- Larocco, James M., James S. House, John R. P. French Jr., "Social Supports Occupational Stress and Health,"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21, No.3, Sept., 1980, pp.202~218.
- Lee, M. S., Crittenden K. S., Yu, E., "Social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Elderly Kore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Human Development*, Vol.42, No.4, 1996, pp.313~327.

家族의 社會的 支援이 社會心理的 安寧에 미치는 影響

- Lin, Nan, Ronald S. Simeone, Walter M. Ensel, Wen Kuo, "Social Supports, Stressful Life Events, and Illness: A Model and an Empirical Tes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20, No. 2, June, 1979, pp.108~119.
- Lu, L.,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 Well-Being and Psychosocial Variables in Taiw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135, No.3, 1995, pp.351~357.
- Uchino, B. N., Cacioppo, J. T. & Kiecolt-Glaser, J. K.,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hysiological Process: A Review with Emphasis on Underlying Mechanism and Implications for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Vol.119, No.3, 1996, pp.488~501.
- Williams, Ann W., John E. Ware, Jr, Cathy A. Donald, "A Model of Mental Health, Life Event, and Social Supports Applicable to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22, No. 4, Dec., 1981, pp.324~336.

*Summary*

---

##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Its Effect on Sociopsychological Well-Being

*Moonhee Suh*

---

This study is aimed at realizing the adults' perception of social support and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their sociopsychological well-being, particularly personal life satisfaction, depression and suicidal intent. For such analysis, the data of 1995 National Health Survey conducted by KIHASA was used.

Social support was measured, in terms of instrumental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which are based on answers to two pertinent questions targeted to adults aged 20~59 years old. The first question was, "Is there someone in your life that can help you in times of difficulty?", and the second was, "Is there someone in your life that you can trust and confide with on a personal level?" The former and latter questions were asked to perceive instrumental support and emotional support, respectively. Each of the questions were followed by "Who?" to realize the source of social support.

As the result, 85% of the people answered 'yes' to instrumental support and 90% answered 'yes' to emotional support. The source of social support turned out to be family and friends: family as strong instrumental supporters and friends as emotional supporters, relatively. On the other hand, married couples identified their spouse as their primary source of social support and husbands proved to receive more support from their wives.

Generally social support revealed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sociopsychological well-being. Instrumental support emitted more significant effects than emotional support. For unmarried people support from parent, siblings and friends have significant positive

家族의 社會的 支援이 社會心理的 安寧에 미치는 影響

effects. Among the married social support from spouse have strong effect on their sociopsychological well-being. Support from friends and relatives had positive effects on single adults and adversely, negative effects on married couples. But the divorced, the separated and the bereaved have no significant supporter effecting on their sociopsychological well-being.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policy implications can be made on health promotion, family support and social welfare policies. First, the significance of social support implies that it must to be considered as one of indispensable factors in health promotion, in addition to the frequently recommended health related behaviors as smoking, drinking, physical exercise etc., Second, the significance of familial support further implies the need for more relevant policies to help family do its function well as well as to prevent dissolution of it. Third, the lack of social support, other than family and friends, urges the need for developing various sources of social support as counselling services and social organizations. Especially considering that social support and its effect are very weak for the divorced, the separated and the bereaved, programs to improve their subjective well-being are needed to develop and implement.